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양 유 진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419명(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게 우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 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인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이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을 통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변인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통합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우울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정서인식의 명확성

* 이 논문은 BK21 사업(사업단명: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경미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365-4354 / E-mail : kmchung@yonsei.ac.kr

우울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부적응 중의 하나로(김교현, 2004; Kandel & Davis, 1982), 청소년기에 이르러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6-12세 아동의 경우 약 2-3%의 유병률을 보이는 데에 반해 12-20세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약 6-9%의 유병률을 보이며, (Dumas & Nilsen, 2003), 약 20%의 청소년이 상승된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Brimaher et al., 1996).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기의 우울증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정서 장애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은 청소년기와 성인기(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에 반복적인 우울 삽화를 경험하고, 청소년기 우울증상이 성인기의 우울장애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있다(Judd et al., 1998; Pine, Cohen, Cohen, & Brook, 1999; Weissman et al., 1999). 또한 우울 증상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달성이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가출, 사회적 철회 등을 동반하며(Angold & Costello, 1995), 자살사고(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김혜원, 2006; 배정숙, 2006; Compas, Grant, & Ey, 1994; Kendler, Karkowski, & Prescott, 1998; Larson & Ham, 1993), 사춘기의 변화(Angold, Costello, Erkanli, & Worthman, 1999; Ge, Conger, & Elder, 2001), 자아 효능감(Dumont & Provost, 1999; Orvaschel, Beeferman, & Kabacoff, 1997)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대인 관계적 요소가 청소년 우울의 발생 및 유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으로 꼽히고 있다(Gotlib & Hammen, 1992).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족 및 사회내의 지위 및 역할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등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며, 또래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 증상을 더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rera & Garrison-Jones, 1992; Gore, Aseltine, & Colten, 1993; McFarlane, Bellissimo, Norman, & Lange, 1994).

부모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양육태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낮은 수준의 돌봄과 높은 수준의 과보호(Patten, Coffey, Posterino, Calin, & Wolfe, 2001; Rey, 1995), 학대와 가혹한 훈육방식(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Ge, Conger, Lorenz, & Simons, 1994; 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 1997)은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부모의 지지, 애착, 승인 정도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Avison & McAlpine, 1999; Hops, Lewinsohn, Andrew, & Roberts, 1990; McFarlane et al., 1994). 그러나 청소년 우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우울의 관련성을 넘어서, 어떤 기제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제로서 정서조절이 대두되고 있다. 정서조절은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이나 개인 내적 의,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전략으로(Thompson, 1990),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적응적 기제를 뜻한다. Sheeber, Hops 및 Davis(2001)는 부모양육이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스트레스 및 지지, 사회적 관계, 인지적 기제와 함께 정서조절을 제시했다. Yap, Allen 및 Sheeber(2007)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조절을 포함한 가족환경, 그리고 청소년의 기질과 가족환경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Morris, Silk, Steinberg, Myers 및 Robinson(2007) 역시 3차원모델(tripartite model)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특징, 관찰, 양육 행동, 가족의 정서적인 분위기와 정서조절이 내현화, 외현화 장애 등을 포함한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모델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이론적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 정서조절과 우울 등의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서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에는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Gross & John, 2003),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능동적, 회피/분산적, 지지 추구적 양식(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서적 회피는 우울과 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Sills & Barlow, 2007). 정서적 회피는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되는 동안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을 말하며(Campbell-Sills & Barlow, 2007), 주의 분산 혹

은 전환, 부인, 철회 등이 이에 속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서적 회피를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피적 대처(coping)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이지영, 권석만, 2006), 이는 개념 상 정서적 회피와 회피적 대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이 부적응적인 이유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정서는 적응에 필요한 개인 내부의, 혹은 외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회피적 양식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Campbell-Sills & Barlow, 2007).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킨 상황이나 스스로의 인지 및 행동 양식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양육태도와 회피적 양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회피적 대처를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회피적 대처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문기숙, 2004; 부영희, 2000; 이경민, 2005; 홍미영, 2006). 또한 부모의 지지는 회피적 대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며(Gomez & McLaren, 2006), 부모양육태도를 거부·체재적,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거나 과도한 성취기대를 보인다고 지각 할수록 회피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3; 성선희, 2006). 그러나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회피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반면 온정은 감소하고(Steinberg & Morris, 2001)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을 조장하는 부모의 시

도가 달라진다는(Dix, 1991; Eisenberg et al., 1999) 주장이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도 부모양육태도와 회피적 정서조절의 관계가 아동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회피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함께, 회피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회피 양식은 우울증상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성인(Blalock & Joiner, 2000; Marchand & Hock, 2003), 대학생(Penland, Masten, Zelhart, Fournier, & Callahan, 2000), 노인(Powers, Gallagher-Thompson, & Kraemer, 2002)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 양식의 사용은 우울 재발과도 관련이 있다(Cronkite & Moos, 1995; Sherbourne, Hays, & Wells, 1995).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 우울한 아동의 경우 인지적, 행동적 회피 양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Garber, Braafladt, & Weiss, 1995; 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Reijntjes, Stegge, Meerum Terwogt, & Hurkens, 2007) 청소년의 경우에도 회피양식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Gomez, 1988;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Silk, Steinberg, & Morris, 2003). 국내연구에서도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우울간의 유의미한 관련이 확인되었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한편, 몇몇 연구들은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서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한다(이서정, 2005; 임전옥, 장성숙 2003; McFarlane et al., 1994; McFarlane & Buehler, 1997).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

로(이수정, 이훈구, 1997)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의 내용과 강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Salovey, Hsee 및 Mayer(1993)는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으며, Goldman, Kreamer 및 Salovey(1996) 역시 감정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우울에 취약한 정서조절 양식의 하나인 반추를 덜 하는 것을 밝혀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양식 중의 하나인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함께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정서조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나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동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다(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또한 부모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할수록, 성취에 대해 격려할수록 정서인식 수준이 높았다(하영자, 2000). 국내연구에서 나은숙(2005)은 양육태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청소년의 정서인식을 집단 간 비교했을 때 어머니의 애정, 자율, 적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부가적으로 정서지능의 하위척도 중의 하나인 정서인식과 부모양육태도의 관계를 보고 있어, 정서인식의 명확성의 특성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

한 면이 있다.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우울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조성은, 2004; Salovey et al., 1993).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해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Beck & Beck, 1972)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부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심재인, 조한익,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및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청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부모양육태도와 회피적 정서조절, 혹은 회피적 정서조절과 우울 등의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쳤으며, 몇몇 연구(Morris et al., 2007; Yap et al., 2007)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델로서 제시한 바 있으나 경험적 연구로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정서조절의 선행요소라는 기존 연구의 보고가 있으나, 이를 부모양육태도, 정서조절, 우울과 관련 지어 살펴보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사이의 관계를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회피적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회피적 정서조절만을 매개하는 경로도 함께 가정하였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정서조절의 선행요소라는 주장이 있으나,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의 세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고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조절간이 현저한 관련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부분매개를 가정하는 기본 연구모형을 검증한 후, 부분 매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완전매개를 가정한 모형을 대안모형 1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 우울로의 순차적 관계를 가정한 모형을 대안모형 2로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49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측치와 극단치,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1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들 중 남자는 161명, 여자는 258명이었다. 전체 평균연령은 14.13세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연령 평균은 각각 13.97세, 여자는

표 1. 참가자 정보(N=419)

	남	여
12세	11명	25명
13세	59명	60명
14세	39명	62명
15세	29명	55명
16세	23명	56명
합계	161명	258명

14.23세였다.

측정 도구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 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은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울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지만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의 0점에서 '매일 있었다'의 3점까지 체크하게 된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되며 절단점(cut-off score)은 16점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영, 최승미, 서국희, 조성진, 김장규, 조맹제(2000)의 연구에서 19세 이하에서의 CES-D의 하위요인은 총 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이었다.

부모양육태도(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허묘연, 1999)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43문항이다.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는 4점 척도의 도구로서 총점의 범위는 43점에서 17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부모양육

태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방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의 영역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 측정하였으며,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애정, 합리적 설명, 방치, 감독을 양육_1, 학대,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을 양육_2로 묶어 총 2개의 소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윤석빈, 1999)

정서조절양식 체크 리스트(윤석빈, 1999)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조절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능동적 양식, 회피 분산적 양식, 지지 추구적 양식으로 구성된다. 능동적 양식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회피 분산적 양식은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한다', 지지 추구적 양식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5점 척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의 5점까지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전옥과 장성숙(2003)이 본래의 척도에 신뢰도와 문항 수를 보완하여 총 25문항으로 만든 것 중 회피 분산적 양식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회피적분산적 양식의 점수범위는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끼리 묶어 총 2개의 소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69였다.

정서인식의 명확성(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이수정, 이훈구, 1997)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한국판 특성 초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다루고 있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끼리 묶어 총 2개의 소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73이었다.

분석

본 연구는 SPSS 13.0을 사용하여 부모양육태도, 정서조절양식,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연구모형을 평가하는 데는 대개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가 사용된다. χ^2 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연구 모형을 기각하기가 쉽고 표본크기에 영향을 쉽게 받는 문제점이 있어 모형을 평가하는데 있어 대개는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된다.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려진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Non Normed Fit Index: NNFI or Tucker-Lewis Index: TL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 검증에 사용하였다. 비교 부합치, 비표준 부합치, 표준 부합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는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RMSEA의 경우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고 본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의 연령 범위가 12-16세로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연령과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도 표 2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인식 수준은 낮아지고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회피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고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우울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우울하고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표 2.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연령	1.00				
2. 부모양육태도	-.273**	1.00			
3. 정서인식 명확성	-.206**	-.196**	1.00		
4. 회피적 정서조절	.151**	-.121**	-.184**	1.00	
5. 우울	.239**	.206**	-.336**	-.407**	1.00
평균	14.12	93.63	35.16	28.33	21.58
표준편차	1.25	17.52	5.81	5.23	7.98

주. * $p < .05$, ** $p < .01$

낮을수록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관 분석을 통해 부모양육태도, 정서인식의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양식과 우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검증

우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회피적 정서조절양식 모두를 부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기본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앞서 상관분석 결과에서 연령이 주요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 연구 모형을 비롯한 모든 모형 검증에서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기본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5, N=419)=81.740$, $p=.000$, TLI=.948, CFI=.967, NFI=.945, RMSEA=.057로 괜찮은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부분매개의 가정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에서 우울로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 1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에서 회피적 정서조절과 우울, 회피적 정서조절에서 우울로의 경로를 제외하여 각 변인이 일직선상의 관계를 가지는 대안모형 2를 검증하였다.

대안모형 1은 분석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chi^2(df=36, N=416)=94.906$, $p=.000$, TLI=.937, CFI=.959, NFI=.936, RMSEA=.063로 괜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기본 연구모형과의 χ^2 차이검증 결과, $\chi^2_{diff}(1)=13.166$ $p=.000$ 로 기본 연구모형에 비해 변인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안 모형 2 역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으나,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8, N=416)=127.006$, $p=.000$, TLI=.909, CFI=.937, NFI=.914, RMSEA=.075로 보통의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기본 연구모형과의 차이검증결과, $\chi^2_{diff}(3)=45.266$ $p=.000$ 로 대안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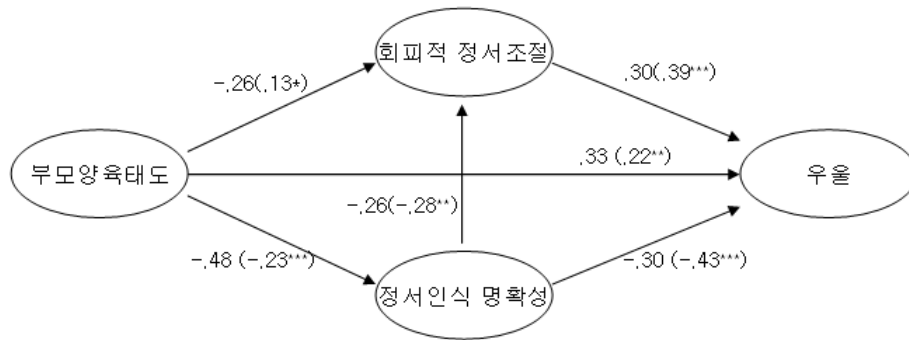


그림 1. 기본 연구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비표준화계수,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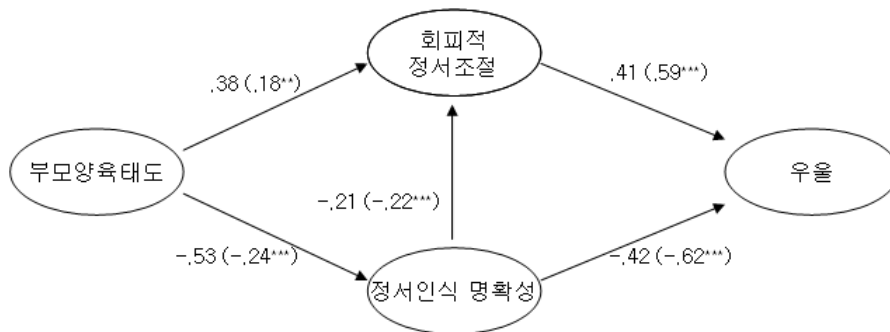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2 대안모형 1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비표준화계수,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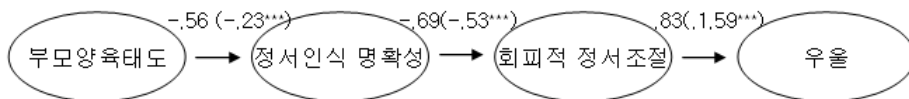


그림 3. 대안모형 2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비표준화계수, *** $p < .001$, ** $p < .01$, * $p < .05$

역시 기본 연구모형에 비해 변인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부모양육태도에서 우울로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나 변인 간의 순차적 관계는 부분매개에 비해 변인 간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변인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밝혔던 기존 연구를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기본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와 t검증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측정 모형			
우울 → 우울_1	1.00 [†]	.87	
우울 → 우울_2	.56	.76	18.038***
우울 → 우울_3	.413	.86	21.254***
우울 → 우울_4	.290	.65	14.625***
부모양육태도 → 양육_1	1.00	.51	
부모양육태도 → 양육_2	1.06	.61	6.276***
회피적 정서조절 → 회피_1	1.00	.79	
회피적 정서조절 → 회피_2	.437	.45	5.150***
정서인식 명확성 → 명확성_1	1.00	.63	
정서인식 명확성 → 명확성_2	.695	.87	8.731***
이론 모형			
부모양육태도 → 정서인식 명확성	-.229	-.48	-4.490***
부모양육태도 → 회피적 정서조절	.133	.26	2.170*
부모양육태도 → 우울	.225	.33	3.254**
정서인식 명확성 → 회피적 정서조절	-.279	-.26	-2.793**
정서인식 명확성 → 우울	-.428	-.30	-3.918***
회피적 정서조절 → 우울	.386	.30	3.367***

주. † 비표준화 계수는 1로 고정함, *** $p < .000$, ** $p < .01$. * $p < .05$.

표 3. 기본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p	TLI	CFI	NFI	RMSEA
기본 연구 모형	81.740	.000	.948	.967	.945	.057
대안모형 1	94.906	.000	.937	.959	.936	.063
대안모형 2	127.006	.000	.909	.937	.914	.075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피적 정서 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부분 매개

하여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가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 이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같이 모든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이 모든 주요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연령을 통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모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또한 χ^2 차이검증결과 이 모형은 완전 매개를 가정한 모형과 변인 간 순차적인 관계를 가정한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회피적 정서인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하여 회피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회피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인 틀로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각 변인들은 청소년 우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Morris 외(2007)와 Yap 외(2007) 등이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Morris 외(2007) 등의 이론적 모델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정서조절의 선행요소

로 알려진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포함시켜 모형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개 아동 및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간과되어 왔던 청소년(Morris et al., 2007; Sheeber et al., 2001; Yap et al., 2007)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 및 성인기와는 구분되는 발달적 단계로서 최근 발달 병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해지는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 분리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우울증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의 발생 및 유지에 대한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과 관련해서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와 감독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해진다. 또한 정서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Calkins & Bell, 1999)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회피적 정서조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을 살펴본 것은 청소년 우울의 발생 및 유지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우울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치료 및 예방 과정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정

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명명 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부인하거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등의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습득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부정적 양육 태도는 유아 및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 부여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적 요구에 부딪히는 등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우울한 청소년을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적 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기질이나 성격 등이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 태도 사이에 쌍방향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Crook & Raskin, 1981; Kerr & Stattin, 2003; Melby & Conger, 1996),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이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서조절 양식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을 매개할 것이라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Morris 외(2007)와 Yap 외(2007) 역시 모델의 구성요소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시킨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만 측정했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우울을 비롯한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오동재, 전성일, & 장환일, 1993; Grolnick & Ryan, 1989),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양육도 자녀의 우울(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이나 정서조절(문정운, 2005; Chang et al., 2003)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주는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들(Deater-Deckard & Dodge, 1997;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쌍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양육태도를 긍정·부정의 차원에서만 다루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우울의 예방 및 치료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과도한 부정적 정서와 함께 긍정적 정서의 부족을 특징으로 하며(Watson & Clark, 1984), 따라서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 기제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 우울의 발생과 유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개입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의 연령 범위가 넓고 주로 초기 청소년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포함하고, 연령의 범위를 좁혀 초기, 중기, 후기청소년기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 우울 및 정서 조절 양식에 있어 성차가 꾸준히 제시되어 온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 김민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진영, 최승미, 서국희, 조성진, 김장규, 조맹제 (2000) 한국인 우울증상표현의 횡문화적 차이-CES-D의 요인구조 분석-. 정신병리학 9, 78-87
- 김혜원 (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나은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문기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문정윤 (2005). 중학생의 부모또래애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16.
- 배정숙 (2006).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부영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 지수가 또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성선혜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양식 및 또래괴롭힘 경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1-19.
- 심재인, 조한익 (1999). 청소년의 감성지능과 부모-자녀 애착이 학업성취, 적응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15, 221-238
- 오경자, 김은정 (1998).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과 심리사회적 특성-3개월간 추적연구. 성격논집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31-41.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경민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 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서정. (2005).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461-493.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259-275.
-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7, 34-43.
- 조성은 (2004).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주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하영자 (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홍미영 (2006).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 161-177.
- Angold, A., & Costello, E. J. (1995).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in child and adolescent. In M. Goodyer (Ed.), *The depressed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gold, A., Costello, E. J., Erkanli, A., & Worthman, M. (1999). Pubertal changes in hormone levels and depression in girls. *Psychological Medicine*, 29, 1043-1053.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9).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arrera, M. J., & Garrison-Jones, C. (1992).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ions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1-16.
- Beck, A. T., Beck, R. W. (1972). Screening depressed patients in family practice: A rapid technic, *Postgraduate Medicine*, 52, 81-85
- Blalock, J. A., & Joiner, T. E. (2000). Interaction of cognitive avoidance coping and stress in predicting depression/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47-65.
- Brimaher, A., Ryan, N. D., Williamson, D. E., Brent, D. A., Kaufman, J., Dahl, R. E., et al. (1996).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427-1439.
- Calkins, S. D., & Bell, K. L. (1999). Developmental transitions as windows to

-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10, 368-372.
- Campbell-Sills, L., & Barlow, D., H. (2007). Incorporating emotion regulation into conceptualizations and treatments of anxiety and mood disorder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542-559).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98-606.
- Compas, B. E., Grant, K., & Ey, S. (1994). Psychosocial stress and child/adolescent depression: Can we be more specific? In W. M. Reynolds (Ed.),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509-523). New York: Plenum Press.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ronkite, R. C., & Moos, R. H. (1995). Life context, coping processes, and depression. In E. E. Beckham & W. R. Leber (Eds.), *Handbook of depression* (2nd ed., pp. 569-587). New York: Guilford Press.
- Crook, T., & Raskin, A. (1981).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ult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2, 950-957.
- Deater-Deckard, K., & Dodge, K. A. (1997).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discipline revisited: Nonlinear effects and variation by culture, context, and gender. *Psychological Inquiry*, 8, 161-175.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umas, J. E., & Nilsen, W. J. (2003).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Allyn and Bacon.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43-363.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Garber, J., Braafladt, N., & Weiss, B. (1995). Affect regulation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pecial Issue: Emotion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1), 93-115.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e, X., Conger, R. D., & Elder, G. H., Jr. (2001). Pubertal transit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ve

-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04-417.
- Ge, X., Conger, R. D., Lorenz, F. O., & Simons, R. L. (1994). Parents'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8-44.
- Goldman, S.,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 115-128.
- Gomez, R. (1988). Locus of control and avoidant coping: Direct, interactional and mediating effects on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323-334.
- Gomez, R., & McLaren, S. (2006). The association of avoidance coping style, and perceived mother and father support with anxiety/depression among late adolescent: Applicability of resiliency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165-1176.
- Gore, S., Aseltine, R. H. J., & Colten, M. E. (1993). Gender, social-relational involv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 101-125.
- Gotlib, I. H., & Hammen, C.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New York: Wiley.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arrington, R. C.,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465-473.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 687-697.
- Hops, H., Lewinsohn, P., Andrews, J., & Roberts, R. (1990). Psychosoci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11-220.
- Judd, L. L., Akiskal, H. S., Maser, J. D., Zeller, P. J., Endicott, J., Coryell, W., et al. (1998). A prospective 12-year study of subsyndromal and syndromal depressive symptoms in unipolar major depressive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 694-700.
- Kandel, D. B., & Davis, M. (1982). Epidemiology of depressive mood in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 Kendler, K. S., Karkowski, L. M., & Prescott, C. A. (1998). Stressful life events and major depression: risk period, long-term contextual threat and diagnostic specific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56, 837-848.
- Kerr, M., & Stattin, H. (2003). Parenting of

- adolescents: Action or reaction? In A. C.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121-15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arson, P. M., & Ham, M. (1993). Stress and "storm and stress" in early adolescence: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events with dysphoric a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30-140.
- Marchand, J., & Hock, E. (2003). Mother's and father'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in the marriage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 313-319.
- McFarlane, A. H., Bellissimo, A., Norman, G. R., & Lange, P. (1994). Adolescent depression in a school-based community sample: Preliminary findings on contributing soc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3*, 601-620.
- McFarlane, C., & Buehler, R. (1997). Negative affective states and the motivated retrieval of positive life events: The role of affect acknowle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200-214.
- Melby, J., & Conger, R. D. (1996).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 academic perform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 113-137.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39-47.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Orvaschel, H., Beeferman, D., & Kabacoff, R. (1997). Depression, self-esteem, sex, and age in a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285-289.
- Patten, G. C., Coffey, C., Posterino, M., Calin, J. B., & Wolfe, R. (2001).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in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475-480.
- Penland, E., Masten, W. G., Zelhart, P., Fournier, G. P., & Callahan, T. A. (2000). Possible selves, depression, and coping skills i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963-969.
- Pine, D. S., Cohen, E., Cohen, P., & Brook, J. (1999).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s of adult depression: Moodiness or mood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33-135.
- Powers, D. V., Gallagher-Thompson, D., & Kraemer, H. C. (2002). Coping and depression in Alzheimer's caregiver: Longitudinal evidence of stability. *Journals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B*, 205-211.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eijntjes, A. H. A., Stegge, H., Meerum Terwogt, M., & Hurkens, E. (2007).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regulation of negative affect in response to vignette depicted emotion-eliciting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49-58.
- Rey, J. M. (1995). Perceptions of poor maternal care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4, 95-100.
- Ryan, N. D., Williamson, D. E., Iyengar, S., Orvaschel, H., Reich, T., Dahl, R. E., et al. (1992). A secular increase in child and adolescent onset affective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600-605.
- Salovey, P., Hsee, C. H., & Mayer, J. D. (199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self-regulation of affect. In D. M. Wegner & J. W. Pennebaker (Eds.), *Handbook of mental control* (pp.258-277).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iffge-Krenke, I., & Klessinger, N. (2000). Long-term effects of avoidant coping on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617-630.
- Sheeber, L., Hops, H., Alpert, A., Davis, B., & Andrew, J. (1997). Family support and conflict: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333-344.
- Sheeber, L., Hops, H., & Davis, B. (2001). Family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19-35.
- Sherbourne, C. D., Hays, R. D., & Wells, K. B. (1995). Person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and course of depression among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345-355.
-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 1015-1029.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s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 1869-1880.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 Thompson, R. A. (1990). Emotion and self-regulation. In R. A.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367-467).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Weissman, M. M., Wolk, S., Goldstein, R. B., Moreau, D., Adams, P., Greenwald, S., et al. (1999).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 1701-1713.

Yap, M. B. H., Allen, N. B., & Sheeber, L. (2007). Using an emotion regulation framework to understanding the role of temperament and family processes in risk for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10(2), 180-196.

원 고 접 수 일 : 2008. 5.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14.

게 재 결 정 일 : 2008. 7. 23.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t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Clarity

Yang YouJin

Chung Kyong-M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s of an 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on adolescent depression. 419 adolescents (7th-10th grade)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n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 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emotion clarity. All th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dicated that an 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emotion clarity partially mediate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depression.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ive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parenting, avoidant emotion regulation, emotion clarity